'藝術활동으로 幸福과 感動 나누기'

포천예술인동우회 제17회 정기회원작품전

포천예술동우회 이병찬 회장이 10월28일 제17회 정기회원작품전에 참석한 내빈을 소개하고 있다.

포천예술인동우회(회장 이병찬)는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제17회 정기회원작품전을 개최했다. 이번 작품전은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포천문화원이 후원해 마련됐다.

10월28일 오후5시에 개최된 개막식에서 이병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펼쳐 놓고 뿌듯함 보다는 아쉬움이 더 남아 가슴 쓸어 내림을 숱하게 반복하면서 또 한번 내년을 생각한다"며 "성에 차지 않는 부족한 이 자리지만 올 한해 열심히 살았노라 스스로 자위하면서 저마다 한 바가지의 시원한 물이 생각나는 요즘 조심스럽게 자리를 펼친다"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예총 포천시지부를 포함하여 연극협회,문인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탄생의 주역이 되어 온 포천예술인동우회는 포천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구심체로서 지역예술 발전의 초석이자 개척자 역할을 다해왔다"며 "제17회 포천예술인동우회 정기회원전 개최를 축하드리며 꾸준한 예술활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나누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의 명단이다.

ㅁ서예▶이병찬▶박재교▶김칠형▶이종훈▶최영진▶양영옥▶한 웅▶이순휘▶홍성민▶안숙자ㅁ서각▶손상용▶윤남옥ㅁ미술▶황행일▶이자희▶홍명진▶김계영ㅁ공예▶김경자▶이혜숙ㅁ시화▶김순진▶손진홍▶이석구▶이중희▶이원용▶하 은▶박경옥▶강돈희▶김성진▶나지누▶김경자ㅁ사진▶한 웅▶어명진▶하 은▶나지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아름다운 상상 · 시공의 메시지

이혜경 작품 전시회 포천반월아트홀서 가져

작품 '시공의 메세지'

이혜경 작품 전시회가 10월21일부터 29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포천시 후원으로 개최돼 포천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전시회는 '아름다운 상상·시공의 메시지'를 테마로 한 작품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를 개최한 이혜경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산업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홍익대, 남서울산업대, 대진대학에서 후학들을 지도했으며 개인전시회 7회, 한국현대도예 15인전(오스트리아), 서울현대도예비엔날레(시립미술관), 이천프레엑스포, 환경도예 26인전(워커힐 미술관), 마시코공방작가전(일본, 마시코), 포천파워아티스트전(반월아트홀), 에덴의 이미지(워싱턴), 흙의 시나위전(쌈지길, 숨갤러리), 화·기 촉감전(포스코갤러리), 남이섬 레종갤러리 외 단체전 80여회 등 다양한 작품 활동 경력을 갖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우즈베키스칸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

김 빅토리아 교수 대진대학교에서 특강

김 빅토리아 교수

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 원동학대학 한국학과장 김 빅토리아(Kim Victoria) 교수가 10월31일 대진대학교 학생회관 6층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불고 있는 한국에 대한 열풍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강사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진대학교 학생 및 교수와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강 이후 대진대학교 관계자는 교류협약서를 작성하여 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에 보냈고 이 학교에서는 협약서에 사인을 하여 최근 대진대학교에 보내 본격적인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남대 카자흐스탄학과 김필영 교수와 대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장윤수 교수가 교류의 물꼬를 텄으며 향후 대진대학교 학생 및 교수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특강을 실시한 김 빅토리아 교수는 백러시아 국립예술대학교 극장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백러시아 국립예술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를 졸업하여 예술학 준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모스크바 러시아과학원 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여 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타슈켄트국립동방학대학교 외국어문학대학 한국문학교수로 활동하다가 최근 동대학 원동학대학 한국학과 학과장 겸 교수로 활동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47

영조(英祖)의 육상궁 참배를 반대하다 처형될 뻔한 조중회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조중회(趙重晦: 1711~1782)의 본관은 함안(咸安)이고 자는 익장(益章), 생육신의 한 사람인 조여(趙旅)의 후손. 개성유수 영복(榮福)의 아들. 이재의 문인. 정시문과에 급제.

1743년(영조19)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영조가 세초(歲初)에 먼저 육상궁(毓祥宮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등을 모신 사당)에 거동하려 하였다. 조중회가 대신(臺臣)으로 상소하였다.

"새해에 종묘(宗廟)를 배알하는 예를 행하지 않고 사묘(私廟)에 먼저 거동하시는 것은 예법에 불가합니다......?"

그러자 영조가 크게 노하여 도보로 흥화문(興化門)을 거쳐 육상궁에 이르러 눈물을 흘리며 하교하였다.

불초한 나 때문에 별세한 어버이에게 욕이 미쳤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신민(臣民)을 대하겠는가? 내가 자결하겠노라. 시위대로 하여금 창을 잡고 빙 둘러 호위하게 하여 대신이하 모든 신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들어오게 하면 어영대장은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얼음판 위에 엎드렸다. 때가 정월 초라 얼음과 눈이 풀리지 않아 북풍이 매우 차갑고 매서웠다. 80세 노인의 몸이 얼어 덜덜 떨리었다. 백관들이 뒤따라왔으나 시위대들의 저지로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당시 세손(정조)이 혼자 모시고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간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영조의 옥체가 덜덜 떨리므로 세손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간하니 주상은 말하였다.

"조중회의 머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환궁하겠다."

세손이 급히 문밖에 나가서 대신을 불러 명을 내렸다.

"조중회의 머리를 어서 베어오라!"

이때 영의정 김상복(金相福)이 호위하는 시위대 문밖에 홀로 서 있다가 아뢰었다.

"조중회는 죽을만한 죄가 없으니 어찌 엄명(嚴命)이라 하여 죄 없는 신하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하(邸下)께서는 성의를 다하여 하늘의 뜻(임금의 뜻)을 돌리도록 하소서.?"

그러자 세손이 발을 구르며 울며 말하였다.

"종사의 위태로움이 목전에 임박했는데 대신이 어찌 신하 한사람을 아껴서 명령을 봉행하지 않소?"

김상복이 대답하였다.

"이번 일은 대조(大朝 영조)의 지나친 거동이신데 도를 넘은 거동으로 인하여 언관(言官 대간)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신은 비록 죽을지언정 감히 명령을 봉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손과 김상복이 서로 버티고 있는 동안 주상이 냉기를 견디지 못하여 다시 하교하였다.

"조중회의 문제는 정청(庭請 세자나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궁정에 이르러 큰일에 대하여 하교를 기다리는 일)을 열어 계사(啓辭 논죄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를 들이도록 하라."

대신들이 계사를 초록(抄錄)하여 드리니 주상이 그 계사를 보고 찢어서 땅에 던지며 말하였다.

"이것은 바로 조중회의 행장이로구나!"

제신들이 계사의 초를 고쳐 올렸다.

"어서 나라의 형벌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하소서."

그러자 주상이 명하기를 조중회를 멀리 흑산도로 유배, 위리안치하게 하라 하고 그날로 떠나보내게 한 후 환궁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배소인 흑산도에 이르기 전에 조중회를 석방하라는 명을 내렸다.

조중회는 그 후 승지,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을 거쳐 공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치사(致仕)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성품이 고결하여 어떠한 권력에도 아부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다. 한국 선비의 표상이었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제1회 가족 詩낭송 대회

포천문화원, 11월22일까지 선착순 15팀 접수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1월29일 오후2시부터 포천시여성회관 3층에서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제1회 가족 시낭송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시낭송 계기조성을 위해 개최하며 15팀만 접수순에 의거 선착순 접수한다.

이번 대회는 포천문인협회와 포천시,포천시의회가 후원하며 대상은 포천시장상, 금상 포천시의회의장상, 은상 포천문화원장상, 동상 포천문인협회장상을 수여한다.

참가자격은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부 또는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 친지1명이상 동반해야 하고 포천시에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동아리에 소속한 사람도 가능하다.

접수는 11월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시낭송은 1팀당 1편이며 자작시는 제외하고 권장시를 낭송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시의 이해도 및 암송력(25점), 음의 고저장단 활용 및 발음의 정확도(30점), 시의 운율과 감정 표현(25점), 태도 및 청중 반응(20점) 등이다.

참가신청서는 포천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우편 및 직접접수는 포천시 신읍동 33-45 포천문화원 사무국으로 하면된다. 팩수는 031-536-1020, 이메일은 kgpc1986@yahoo.co.kr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문화원(031-532-50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삶의 질 向上 세미나

포천의제21 산업경제분과위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11월4일 오후2시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부상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실시한 이날 세미나에서 송종택 (주)한호 무역부문 사업개발실장(상무)은 "국가경쟁력 신장을 위한 범 국민적 분위기 조성과 초당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덴마아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및 홍콩 등의 강소국으로 불리우는 국가의 규모의 한계를 극복한 시스템 및 제도 그리고 생존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만의 경쟁우위를 위한 차별화를 모색하지 않고는 일본, 미국 그리고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등 주변 강대국가의 경제력 및 영향력에 종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삶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도록 볼거리 제공'

제9회 포천美協 정기회원전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사)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는 11월4일 제9회 정기회원전 개막식을 갖고 참석한 내빈 등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지부장 황행일)는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아홉 번째 정기회원전을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원전은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포천예총이 후원하며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문인화, 디자인 부문에 37명의 작가가 출품한 작품이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 개막식은 11월4일 오후4시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이석구 포천향토사연구소장등 내빈과 작가 및 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황행일 지부장은 "미술이란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고 믿는 우리 미술인들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성실하게 주민들의 삶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는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산업이 결합되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는 시대로 문화와 예술이 바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전시회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포천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알차고 의미있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작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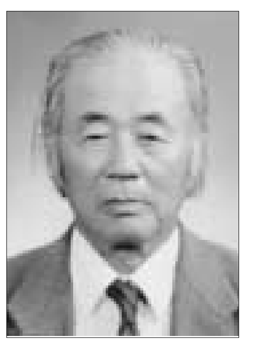
ㅁ한국화▶최윤섭▶이자희▶박희경ㅁ서양화▶황행일▶홍승표▶허선명▶하치갑▶조병대▶임현미▶이관희▶이경림▶심명숙▶박영율▶김은희▶김계영ㅁ조각▶최원준▶임승오▶유명문▶안경진ㅁ공예▶김무언▶이혜경▶이경진▶엄기해ㅁ서예▶양주승▶홍인봉▶형용철▶한영수▶정영희▶장동원▶이연자▶유만영▶원용식▶엄연희ㅁ문인화▶임영호▶이병찬ㅁ디자인▶이관식▶지영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대 漢詩

祝娥林藝術祭

축아림예술제


錦岩 楊載昌
포천향교 전교

祝杯藝祭菊香秋(축배예제국향추)
예술제를 열고 그윽한 국화향기속에서 축배를 드는데

源遠瀯湖不息流(원원영호불식류)
근원이 먼 영호강은 오늘도 쉬지 않고 흐르네

德裕奇岩天作壘(덕유기암천작루)
덕유산의 기암은 하늘이 만든 보루이며

飛鷄絶壁古來樓(비계절벽고래누)
비계산 절벽은 마치 오래된 누각이네

建溪檻上詩人會(건계함상시인회)
건계정 난간위에는 시인들이 모이고

搜勝臺邊賀客留(수승대변가객류)
수승대가에는 하객들이 쉬고 있네

勝地娥林佳麗地(승지아림가려지)
예부터 아침(거창)은 승지로 이름났는데

瓊章美句滿場收(경장미구만장수)
아름답고 좋은 글들이 마당에 가득히 쌓이네